

우리 나라 결핵지표를 산출하는 곳,

결핵연구원 역학조사과

‘날씨를 확인하듯 외환을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라는 광고가 있다.

역학부 역학조사과에서의 하루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역학조사과의 문을 열면 외환을 확인하듯 결핵정보감시체계 진행 상황을 매일, 아니 수시로 확인하곤 한다.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결핵정보 감시체계는 1년이 지난 지금 보건소를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환자 신고자료의 확인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화나 팩스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의사항, 개선요구들을 답변하고,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감시센터로 모인 그 많은 신고 자료들을 그대로 컴퓨터 속에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일, 즉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결핵 신환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감염률등 각종 지표들을 산출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결핵실태를 그대로 보여줄 만큼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그 정확도를 높여갈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결핵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역학조사과는 앞서 언급한 각종 지표들을 얻어 내고자 오랜 기간 각종 연구 조사사업을 수행해 왔다. 결핵정보감시체계 이전의 7차에 걸친 결핵실태 조사 결과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대표성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폐결핵 발생률 조사로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추계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결핵인식도 조사, 화학요법의 치



1953년 순수 민간단체로 창립되어 오늘까지 결핵퇴치의 한길을 걸어온 본회가 하고 있는 일과, 현재 활발하게 진행중인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결핵(TB)에 관한 레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호에는 결핵연구원 역학조사과를 찾았습니다(편집자주)

료성적 및 재발률 조사, 민간 병의원 치료효율 조사, 만성 배균 환자 추이, 보건소 치료효율 추이, 보건소의 중단.진출자의 추고조사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여기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학분야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개발도상국 결핵역학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매년 결핵역학 연구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연맹(IUAT/LD), 국제정보조사기구(TSRU)등 각종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국제적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의 연구결과를 교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일 3국 결핵연구소의 결핵학술 포럼을 개최하여 각국의 결핵현황과 연구 경향등을 나누었고 결핵퇴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역학조사과의 중요한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도서실이다. 이곳에는 1차에서 7차에 걸친 전국결핵실태조사 자료를 비롯, 결핵연구원 논문집, 국내의 결핵관련 자료의 분류, 보존, 관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며 결핵관련 국내외 학술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일까? 역학부를 조용히 지켜주시는 부장님과 함께 각각 역학/통계, 전산,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5명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10여년 전 아직 군인의 신분으로 입사하게 되어 군복을 입고 출근한 전설의 주인공인 과장님의 철두철미한 진두지휘 아래 4명의 과원은 고지점령(?)을 위해 오늘도 각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삭막하고 딱딱한 역학부 역학조사과를 상상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상과는 달리 그 안의 우리들은 모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각자 전문적인 자기 업무가 있으나 내 일과 네 일을 나누지 않고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돕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후 해가 서편으로 기울어질 무렵,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더욱 당당해진다. 다시 내일의 활기찬 시작을 위하여... ☆

배정임(결핵연구원 역학조사과)

